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주매일 1833-9030

전주매일 1833-9030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11월 1일 목요일 (음 9월 24일) 제216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도,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올인'

전북 연고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 열어 지역현안 공유 해결책 논의 진선미 여가부장관 등 찾아 예산 반영 관심·지원 요청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31일 서울 국회를 방문해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및 국회 상임위원장들을 만나 2019년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전북도가 지난 31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신성장 사업 등 지속성장이 가능한 예산확보를 위해 도내 연고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데 이어, 국회 주요 상임위원장, 여가부장관, 국회 수석전문위원들과 만나 정치권과의 적극적인 공조체계를 전개하고 있다. (관련사진 3면)

이번 노력은, 11월 국회예산 심사가 본격 돌입하는 시기에 앞서 쟁점예산 확보를 위한 대응논리와 소관 상임위원안사업, 법안 등을 정치권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다.

먼저, 전북도는 국회에서 전북 연고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2019 국가예산 확보 등 지역 현안을 공유하면서 해결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이 14명이 참석, 2019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공조방안과 지역현안 및 주요 SOC사업에 대해 요구사항을 듣고 이를 정리해 전북도를 정책적으로 지원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필수 예산

사업과 현안에 대해 지원 필요성과 절박한 상황에 대해 전북 연고출신 국회의원에게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직접 논의된 필수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으로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동서남북도로' 등 새만금 SOC 사업 추가 반영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대체사업인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미래산업생태계조성'을 위한 선도시업인 '친환경 고기능 상용 특장부품 고도화' 사업에 60억원, '고분자 연료전지 신소재평가센터 구축'을 위한 장비구입 등 50억원 등 지역경제 체질개선 사업 국화단계 반영을 건의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지역균형 1호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벨리 조성 사업 중 '종자기업 공동 활용 종합공정시설 구축' 5억원, '장내유용 미생물 은행 구축' 15억원, '스마트 팜 혁신벨리' 320억원 등 반영을 요청했다.

특히, 시급한 전북 현안사업으로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탄소소재법 개정),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국민연금법 개정), ▲새만금 지역 투자여건 개선(새만금사업법 개정),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국립공공보건의료원법 제정) 및 ▲2023 새만금 세계잡버리 성공개최 지원(세계잡버리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하여 제·개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 밖에, 군산조선소 조기 재가동 및

GM 군산공장 활용방안 마련 지원과 수도권 공공기관의 전북 이전 지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송 지사는 전북 연고의원 예산정책 협의회에 이어서, 국회 농해수위, 산자중기위, 국토위, 과기위 각 상임위원장과 진선미 여가부장관, 문체위, 환노위 수석전문위원들을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도정의 주요 핵심사업이 2019년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정부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지역 정치권은 물론 시군과 협력하고, 연고 지역 국회의원 등과 다각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예산 증액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정진성 기자

## "가장 아픈 곳에서 아름다운 꽃 핀다"

김승수 전주시장, 아시아미래포럼 강연

선미촌 정비사업 등 전주형 포용성장 지역순환경제 사례 발표 시, 8-9일 전문가들과 '행복의경제학 국제회의'



식량자립과 경제자립, 에너지자립, 문화자립 등을 설정하고 지역화를 통해 시민들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김승수 전주시장(사진)이 지난 31일 서울 그랜드시티호텔에서 열린 제9회 '2018 아시아미래포럼'에서 강연자로 초청돼 전주형 목민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주용성장 지역순환경제 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아시아미래포럼은 '변형과 지속가능 사이의 균형 찾기'를 주제로 아시아 국가의 공통과제를 살펴보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9회째를 맞아 세계적인 석학들과 정부 관료, 정치지도자, 시민사회 활동가, 기업인, 청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환 불평등 새로운 상상과 만나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김 시장은 포럼의 둘째 날 '포용성장과 지역순환경제' 세션의 발표자로 나서 성매매집결지를 공권력을 동원한 전면개발 방식이 아닌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점진적 기능전환 방식으로 시행중인 선미촌의 문화재생 사례를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선미촌 정비사업은 도시가 변화하는 과정이 개발의 논리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장 아픈 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핀다'는 논리로 아픈 기억을 모두 삭제하는 방식이 아닌 도시의 기억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두 모아 현재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함께 상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가장 인간적인 도시를 지향하는 전주시는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큰 방향으로 공동체 복원을 전제로 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전주형 독립경제, 즉 지역순환경제를 든든하게 떠받치는 버팀목인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주용성장 지역순환경제 사례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시는 오는 11월 8일과 9일에는 이틀간 전 세계 사람·생태·문화·사회적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시민들이 행복한 지역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담론의 장인 '2018 행복의경제학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이어, 9~10일 이틀간 풍남문광장에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2018 사회적경제박람회'도 열 예정이다.

앞서, 김 시장은 지난해 '제5회 대한민국 정책 컨벤션&페스티벌'과 '2017 아시아 인간도시 수원포럼'에 초청을 받아 성매매집결지를 문화·예술과 인권의 공간으로 만드는 선미촌 문화재생사업을 소개, 대한민국 혁신 정책이자 아시아를 대표하는 인간도시 정책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구도심에 슬럼화된 형태로 형성된 이후 보이지 않는 산책처럼 전주를 단절시켜온 선미촌이 문화예술과 인권의 옷을 입고 시민의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일상과 행복 한 삶, 문화예술로 넘쳐나는 시민공방촌으로의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

##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실명 공개... 초·중·고교까지 확장되나?

유은혜 부총리, 가능성 시사... "유치원 문제부터 마무리"

사립유치원에 이어 초·중·고교의 민낯도 드러날 전망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초·중·고교 감사결과까지 실명으로 공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 31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강도높은 대응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들이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무엇을

할 건지 발표하길 기대했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 비리가 불거진 뒤 "유치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어린이집부터 초·중·고교까지 이참에 모두 들춰 봐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유 부총리는 "벌려놓은 것(유치원 문제)부터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앞

으로 유치원이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홈페이지에 2013~2017년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했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처럼 법적 근거를 갖고 공개할 때에는 같은 기준과 원칙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총부교육청은 11월부터 초·

중·고교에 대한 감사결과를 학교실명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전남·부산교육청도 감사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고, 다른 교육청들도 감사결과 공개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인사, 예산, 시설관리 뿐 아니라 고입·대입 등 진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학교생활기록부, 특별·봉사활동 등의 비리 실태를 학부모들이 살펴볼 수 있게 됐다. /장은성 기자

해발 400~800m 연평균 11.3℃  
안전한 먹거리! 반딧불이가 배달합니다!

# 무주 반딧불 농·특산물 서울로 갑니다!

**농·특산물 홍보 & 판매행사**

기간 : 2018. 11. 2(금) ~ 11. 7(수)

장소 : 농협 하나로마트 서울 양재점 (창동,고양,성남)

mu u 무주군 무주반딧불 농·특산물 홍보 & 판매행사 추진위원회 Tel:(063)320-2841~2